

미션+ MISSION

CBS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선교 소식지 Vol.9 2014. 2.



CBS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60주년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CBS Media Group
60th Anniversary



“창사 60주년, CBS의 새 얼굴입니다”

CBS가 걸어온 길 창사 60주년 비전선포식 새로운 CI 공개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출범한 CBS가 2014년 1월 14일 오후 5시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CBS 창사 60주년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60년 전 대한민국 민영방송의 장을 열었던 CBS, 창사 60주년을 맞아 지금의 미디어 격변기를 새롭게 선도해갈 미래의 비전을 밝히고 나누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CBS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업정신을 담은 회사 로고 이미지(CI)를 공개함과 동시에 창사 60주년 비전 선포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창사 60주년 슬로건도 함께 공표했다.

새롭게 공개된 CBS의 CI는 CBS 글자 모양에 각각 ‘세상을 비추는 빛’, ‘사랑’, ‘조화’의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며, 각 이니셜을 담은 사각형의 모양은 CBS가 추구하는 정직함과 바른 언론의 상을 미디어 스크린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CBS는 창사 60주년의 비전으로 ‘Beyond Radio, Smart News, Forward Mission’을 제시했다. ‘Beyond Radio’는 웹 모바일 플랫폼으로 라디오 콘텐츠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Smart News’는 스마트미디어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SNS 활용 및 이용자 참여가 대폭 강화된 새로운 뉴스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마지막으로 ‘Forward Mission’은 세계 선교와 함께 사회 선교 및 차세대 선교 등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적극적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창사 60주년 슬로건인 “당신을 믿습니다”는, CBS가 위안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믿음’으로 힘을 주고, 갈등과





좌절이 만연한 사회를 ‘신뢰’ 운동으로 치유하며, 나아가 진실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안내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런 뜻을 CBS의 모든 방송과 행사를 통해 2014년 한 해 캠페인으로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

CBS는 <창사 60주년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창사 60주년 기념 대형 공연 시리즈’, ‘찾아가는 콘서트’, ‘창사기념 홈커밍데이 방송’, ‘당신을 믿습니다 라디오 연중 캠페인 스팟’ 등과 함께 CBS TV가 펼치는 중보 기도운동 ‘I Pray for you’와 해외선교 지원운동 ‘당신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등 사회 공헌 운동 이벤트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1월 14일에 열린 <CBS 창사 60주년 비전선포식>에서는 CBS를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취자들과 교계 인사 및 CBS 직원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및 여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했다.

contents

02	창사60주년	설교
03	창사60주년	신년사
04	CBS TV 개편	삼손과 들릴라
06	CBS Family	100만 방송선교사 모집
07	WCC 중계	CBS TV, WCC총회 주관방송사 역할
08	희망 나눔	‘몽골 게르교회 건축 프로젝트’
09	수상 프로그램	CBS에 주목한 한국 사회
10	글로벌 프로젝트	기독교방송 설립 ‘바람’
12	C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14	CBS CCM	24회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15	신앙의 현장	CBS 사목실의 기도하는 손길들
16	지역 네트워크	위드하우스 3호점 준공 감사 예배
18	스마트 세상	노컷뉴스 앱 2.0 출시
20	운영이사회	CBS 운영이사회 창립

바른 목소리와 따뜻한 사랑

권오서 재단이사장



올바르고, 정확하게 공정한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바로 방송의 사명입니다. 언론과 방송의 통제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CBS는 치우침이 없이 진실을 전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듣는 방송이 바로 CBS이었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모두 권력과 외압에 휘둘려 거짓되고, 여과된 소식만을 전했을 때에도 CBS만은 바르고 정직한 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 진실된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CBS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방송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목소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사랑의 소리로, 상처 난 교회와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유하는 CBS의 모습은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CBS의 시작은 처음에 종합방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만, 기독교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바른 소리를 내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24시간 복음만을 내보내진 않기 때문에 CBS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사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귀한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소리와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해왔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자유인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도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같습니다.(사도행전 9:19-22)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지금까지 잘 해 온 것처럼, 우리 CBS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끼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노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연장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사랑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방송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온 CBS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뤄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60세 청춘’ 새로운 출발

이재천 사장



사랑하는 CBS 애청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우리 CBS가 이 땅에 첫 전파를 발사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기관이자 정도 언론 기관인 CBS는 이제 ‘60세 청춘’의 연륜과 패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디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다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을 밝힌다’는 기독교 가치를 담은 CBS의 새 얼굴, 새 CI를 오는 14일 대내외에 선포하겠습니다. 또 ‘노컷뉴스’의 얼굴도 새롭게 바꾸고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뉴스 브랜드도 출범시킬 것입니다.

회사는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을 넘어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며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세 가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Beyond Broadcasting’, ‘방송을 넘어서’입니다. 우리는 국내 최초로 라디오와 TV를 넘어 인터넷, 모바일, 신문 등 모든 미디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멀티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CBS는 앞으로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종합 콘텐츠 공급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비전과 목표는 ‘Smart Contents’입

니다. 최근 스마트 미디어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콘텐츠 소비 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뉴스, 시사, 교양, 오락, 선교 등 모든 분야에서 웹·모바일 등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한 형식으로, 차별화된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개방 △공유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셜 서비스를 강화해 미디어 시장 소비자들께서 실제로 원하는 콘텐츠, ‘스마트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Forward Mission’입니다. 포워드 미션은 ‘교회’와 ‘국내’와 ‘세대’를 뛰어넘는 선교에 나서겠다는 CBS의 선언입니다. CBS는 앞으로 교회 밖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시대에 고통받고 소외 받는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건 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오지와 복음 불모 지역에 지금까지 마흔여덟 개의 방송을 세운 데 이어 창사 60주년인 올해는 예수 개까지 해외 현지 방송을 늘리겠습니다.

앞으로 CBS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우리 불굴의 열정이 100년의 새 역사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CBS 애청자와 임직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TV 개편

CBS TV, 2014년 1월
개편으로 새 단장

2014년 1월 6일, CBS TV가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이스라엘 최고 영웅 삼손의 이야기를 그린 성서 드라마 <삼손과 들릴라>를 비롯해 유명 스타들이 오늘의 나라를 있게 한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토크멘터리 <멘토, 길을 묻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신학 교수들과 함께 성경과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들을 풀어가는 토크쇼 <낸시랭의 신학편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어려운 신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특강 프로그램 <CBS 신학강좌> 등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



특집기획 <삼손과 들릴라>

매주 금-토 오전 10:50

2014년 1월 10일 첫 방송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었던 삼손의 드라마틱한 일대기를 HD고화질의 영상으로 완벽히 재현한 대작 드라마 <삼손과 들릴라>는 브라질 Record TV가 1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해서 제작한 시리즈로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남미에서 촬영되었고 BC 11세기의 이스라엘의 생활과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그 당시의 유물까지 하나하나 고증을 통해 재현해 냈다. 이 드라마는 브라질에서 황금 시간대인 11시에 방영되어 TV 방영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미국 및 유럽에서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누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삼손과 들릴라> 통해 지혜의 힘과 절제의 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멘토, 길을 묻다

매주 목 오전 10:50

2014년 2월 6일 첫 방송

누구나 인생의 길 위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잡이가 되어준 멘토가 있다.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 '스타'의 뒤에도

기도와 헌신으로 이끌어준 신앙의 멘토가 있다.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멘토에게 신앙의 길을 묻는 프로그램이다.

2월 6일 첫 방송에서는 가수 이상우 씨가 신앙의 멘토인 누나를 만나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고백하는 가슴 뭉클한 교감이 소개됐다. 이밖에 유명 크리스천 '스타'들의 모습과 멘토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이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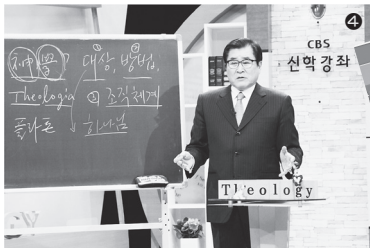
낸시랭의 신학편지

매주 수 오후 7:00

2014년 1월 22일 첫 방송

한국 사회의 뜨거운 아이콘, 팝아티스트 낸시랭. 평소 한국사회에 대해 당돌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녀가 소망교회에 출석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낸시랭이 성서와 기독교 신앙에 얹힌 질문들을 놓고 신학교수들과 솔직발랄한 신학 토크쇼를 벌인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돌직구성 질문 편지를 받아낼 출연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젊은 신학자 권연경 교수(숭실대 기독교학)와 김학철 교수(연세대 성서학)이다.



- ① 멘토, 길을 묻다
- ② CBS교계뉴스
- ③ 낸시랭의 신학편지
- ④ CBS 신학강좌
- ⑤ 새롭게하소서
- ⑥ 미션2014, 주여 나를 보내소서

CBS 신학강좌

매주 토 오전 7:30

2014년 1월 11일 첫 방송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CBS 성서학당>,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등 유익한 특강 프로그램을 방송 중인 CBS TV가 드리는 새로운 특강 선물 <CBS 신학강좌>, 한국 교회의 대표하는 각 교단 신학교 총장 등 신학자와 목회자 등이 강사로 나서서 어렵기만 했던 신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연속 강의의 프로그램이다.

첫 강의는 김영우 목사(총신대 이사장, 서천읍교회 담임목사)가 진행한다. 김영우 목사는 '개혁신학'을 특유의 구수한 입담과 자상한 설명으로 풀어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롭게하소서

매주 월-화 오전 10:30

2014년 1월 27일 새 단장

CBS TV의 간판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는 기존 서정오 목사, 장주희 아나운서에 이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목회자 그룹의 리더 김학중 목사와 라디오와 TV를 넘나들며 활약을 펼치는 방송인 박소현 씨가 카메라 앞에 선다.

김학중 목사는 개척 31년 만에 출석교인이 2만 2천여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 안산 꿈의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CBS 파워특강의 명강사이기도 하다. 방송인 박소현 씨는 지상파 TV와 라디오에서 16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CBS교계뉴스

매주 월-금 오전 7:00, 밤 9:50

2014년 1월 6일 새 단장

건강한 한국교회를 지향하는 CBS TV 뉴스는 이번 개편부터 투 엠시 체제를 구축해 방송한다.

송정훈, 김윤주 앵커의 진행으로 한국교회의 뉴스를 공정하고 발 빠르게 전하는 것은 물론 뉴스 시간도 확대해 지역 교계의 다양하고 유익한 뉴스를 담았다

CBS 뉴스는 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파수꾼과 방패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도 신천지아웃 뉴스를 통해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미션2014, 주여 나를 보내소서

매주 월-수 오후 1:20 새 단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 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사역을 증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실현하는 선교 현장 프로그램이다. 또한 작은교회, 건강한 교회의 사역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월요일 "미션 프로젝트"는 다음세대 살리기 프로젝트, 태국 기독교방송 설립 운동, 아프리카 의료선교선 모금 운동과 같은 'CBS의 선교적 사명'을 시청자와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화요일 "희망, 한국교회"는 한국 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역을 펼치는 건강한 한국 교회 모델을 발굴, 소개하는 시간이다.

100만 방송선교사 모집 태국에 60개 기독교 방송 설립 추진 CBS 정기 후원회원 모집



CBS는 지난해 12월 5일, 100만 방송선교사 모집을 위한 CBS 후원 특별모금방송 <주님 말씀하시면>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지난 한해 CBS는 위성, 케이블에 이어 IPTV까지 진출하며 방송선교에 힘쓰는 한편, 우간다와 말리, 차드, 몽골, 네팔, 태국 등 해외 10여 개국을 돌며 선교활동과 구제사업, 그리고 특별히 해외 기독교방송 설립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태국의 경우, CBS의 모금활동을 통해 이미 48개의 현지어 라디오 방송국이 설립돼 라디오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지 주민들에게 놀라운 선교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 인접

국가들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CBS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태국 CBS 방송국을 60곳까지 늘릴 계획이며 우간다 등 아프리카 지역

에도 기독교방송국을 세우기 위해 현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CBS가 (사)한국교회연합과 함께한 몽골 게르교회 건축 사업도 많은 시청자의 후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5월에 20동의 게르교회가 건립될 예정이다. CBS는 100만 방송선교사 모집을 통해 모아진 성도들의 정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선교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CBS선교TV본부 최인 본부장은 “올해에는 더욱 많은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CBS가 펼치는 여러 사업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100만 방송선교사 모집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정기후원회원 가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02-2650-7004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매일 CBS 성서학당 시간을 기다립니다

멀리 미국 동부에서 매일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김OO 후원자님. 정년 퇴임한 남편과 두 분만 살고 계신다는데 위성방송을 통해 CBS TV를 시청하면서 신앙에 큰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성서학당’을 통해 평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과 몰랐던 부분들을 재미있게 배워가면서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매일 매일 CBS TV의 성서학당 방송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김OO 후원자님. 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도 아끼고 아껴 매일 마련한 후원금을 항공우편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 CBS를 찾아오신 구순 권사님 모녀

지난해 11월말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던 날, 서울 근교에 사시는 K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구순의 어머니께서 CBS를 위해 모으신 헌금이 있는데, 꼭 오늘 CBS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너무 추운 날씨라 후원관리팀에서 직접 차로 두 모녀 권사님을 모셔 방송시설도 견학시켜 드리고 뜨거운 기도를 나눴습니다. 가져오신 헌금은 은행에 입금하는데, 오랫동안 한 장, 두 장 쌓아 두셨던 돈이라 잘 떨어지지 않아 기계로는 셀 수가 없어 일일이 손으로 세어 입금해야만 했습니다.

후원자
사연



CBS TV, WCC총회 주관방송사 역할 전세계에 WCC총회 실황 생중계 “CBS를 통한 방송에 깊은 감동”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주관방송사로 선정된 CBS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총회 모습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았다.

CBS는 지난해 6월 WCC 제10차 총회 주관방송사로 선정된 뒤, ‘WCC 중계방송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을 꾸려 4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지난해 10월 30일 WCC 총회 개회 예배와 개막식, 11월 8일 폐회예배를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역할을 성공리에 마쳤다.

CBS는 특히 생중계 화면을 국내 타 방송사들에게도 무상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 기독교 방송사의 장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

CBS는 또 개막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 진행되는 아침 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 및 오후 주요 회의, 저녁기도회 등 하루 4~5차례, 14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생

중계함으로써 총회현장에 가지 못한 한국교회 교인들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WCC 총회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CBS는 이번 WCC 10차 총회를 취재하러 온 세계 50여개국 유수의 언론사들에 생생한 뉴스 영상을 공급했으며, 이 덕분에 해외 기자들은 매일 WCC 총회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할 수 있었다.

CBS는 이번 총회 중계를 위해서 방송 스태프만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또한 중계 인력과 별도로 10명의 취재인력을 부산 벡스코 현장에 파견해 매일 진행되는 WCC 총회의 주요 내용 등을 취재, 편집해 CBS TV뉴스를 통해 하루 두 차례 신속

세계교회에서 보내 온 반응



“이번 WCC 총회를 파트너로서, 협력자로서 훌륭하게 제작해 준 주관방송사 CBS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CBS가 제작한다면 WCC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Mark Beach | WCC홍보국장

감사하다는 말이 늦었습니다. 이번 WCC 총회에서 보여준 CBS 방송국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WCC 총회는 이번 CBS를 통해 방송된 본 회의에 대해서 깊은 만족과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 번 CBS 방송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살롬

— The Rev. Doug Goodwin | WCC무대감독

하게 보도했다.

CBS 이재천 사장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축제인 WCC 총회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CBS가 주관방송사로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CBS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WCC 총회의 중요한 회의와 행사 장면들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 CBS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중계였다”고 밝혔다.

희망 나눔

CBS, '몽골 게르교회 건축 프로젝트' 시청자 후원금 1억여 원 전달

CBS(사장 이재천)와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이하 '한교연')이 복음화율 3%에 불과한 몽골에 현지 전통가옥인 '게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기획한 '몽골 게르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거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8월 '몽골 게르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협약(MOU)'을 맺은 CBS와 한교연은 9월 초 7박 8일 동안 게르교회를 필요로 하는 몽골 현지의 상황을 취재했다. 취재한 내용은 지난해 10월 CBS TV 「미션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진행 임동진 목사, 탤런트 이현경)」를 통해 3부작으로 방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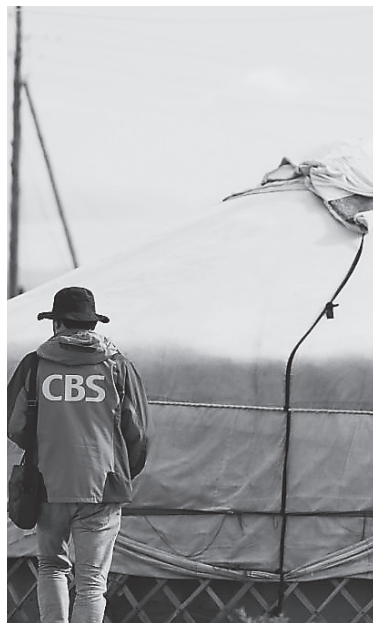
3회 방송 '1억 1천 5백만 원' 성금

방송의 결과는 놀라웠다. 단 3회 방송에 1억 1천 5백만 원이라는 큰 후원금이 CBS 계좌로 담지한 것. 모금된 이 건축후금이 몽골 복음화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될 것이다.

12월 3일 성금 전달식' 가져

CBS는 이렇게 모인 시청자의 후원금을 12월 3일 한교연 측에 전달했다. CBS와 한교연은 앞으로 몽골복음주의협의회와 함께 올해 2월 게르교회 설립 지역과 교역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봄 지역별로 게르교회를 세운 후 5월에 몽골 게르교회 봉헌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CBS TV '몽골 게르교회 건축 프로젝트'(연출: 천신용, 반태경



PD)는 제5회 지난해 말 한국기독교대상 '해외선교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눴시다 지난 10년간 65억 어려운 이웃에 전달



2004년 3월 첫 방송 시작으로, 지금까지 CBS TV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눴시다〉는 타 방송사의 도네이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일회성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과 차별화된 복지 시스템을 도입한 신개념의 이웃사랑 프로그램이다. 교회, 사회복지전문기관, 병원,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연계된 복지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500여 기관, 단체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눴시다〉는 그동안 모금된 65억 원의 성금 전액을 방송에 소개된 500여 가정에 전달했다.

이처럼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눴시다〉는 빈곤, 질병, 장애, 결손 등의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방송을 통한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독교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CBS에 주목한 한국 사회



제40회 한국방송대상 CBS 7관왕 석권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성추문 파문’ 라디오뉴스 부문 수상

지난해 9월에 열린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보도국 임진수, 이지혜 기자 등은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성추문 파문’을 단독 보도해 라디오뉴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 라디오 부문에서는 대전CBS의 ‘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 특종과 제주CBS의 ‘ON AIR! 지꺼진 상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7개 부문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CBS라디오(표준FM 98.1MHz) 방송내용, 편성 1위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평가결과

CBS AM(표준FM 98.1MHz) 라디오 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 방송 내용과 편성부문에서 156개 전체 라디오 채널 중 1위를 차지했다. CBS 표준FM은 방송 내용과 편성분야 외에 방송운영 실적을 더한 종합평가에서는 합계 500점 만점에 418.12(83.6)점을 받아 전체 156개 라디오방송 중 10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요 방송은 물론 극동, 불교, 평화 등 여타 종교방송을 크게 앞서는 것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이 뽑은 ‘올해의 검색어’ 시사분야 1위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2013 종합 검색어 순위에서 라디오 분야 5위에 올랐다. 시사분야에서는 단연 1등이었다. 라디오 검색어 상위에 오른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모두 음악 중심 프로그램인 데 비해,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한편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12월 (사)한국비평학회와 한국방송비평회가 주관하는 ‘2013방송비평상’도 수상했다.



‘정전60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

CBS 특집다큐멘터리 ‘정전60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연출:오현숙PD)가 지난해 10월 24일 제 19회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정전 60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는 최대 위기를 맞은 남북경협과 생생한 탈북자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큰 관심을 끌었다.



CBS 특집 다큐 ‘소리를 보여드립니다’, 이달의 PD상 수상

“장애인의 스마트권 현실을 조명” 평가

장애인들의 스마트 접근권을 다룬 CBS 특집 ‘소리를 보여드립니다’(연출:손근필PD)가 한국PD연합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심사를 진행했던 한국PD연합회 관계자는 “<소리를 보여드립니다>는 장애인의 스마트 접근권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라고 전했다.

태국에 이어 아프리카에도 기독교방송 설립 '바람'

지난해 12월 CBS를 찾은 우간다 이호영 선교사는 디지털기술국에서 우간다 네비지역에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9일~21일까지 2박 3일의 교육기간 동안 라디오방송국 설립절차, 방송계통 및 계통별 장비의 기능, 송신실 견학, 오디오 에디터 실습 등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여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CBS가 보유한 라디오방송 자동송출시스템(Nahollo system)을 설치하여 2차례 운용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새로 설립될 우간다방송국에서 CBS의 '나홀로'(Nahollo) 시스템이 사용될 예정이다.

동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는 3000만 명의 인구에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로 인접국가인 콩고, 수단 등의 선교전략 요충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라디오방송국을 세우려는 네비지역은 이들 국가와 인접해 있으며 날로 확장되는 이슬람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라디오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호영 선교사는 현지 교단(성공회)의 도움으로 UCC(Uganda Communication Committee : 우간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라디오방송국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방송주파수를 허가받은 상태다. 1월 스튜디오공사와 안테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시험방송을 거쳐 4월 부활절을 기점으로 본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우간다는 대다수 인구가 라디오 청취를 통해 뉴스 및 정보를 얻으며 문화를 공유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선교방식보다 라디오방송 선교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현지 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BS는 이번 라디오방송국 설립 교육을 계기로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르완다, 방글라데시, 남아공 화국, 브룬디 등 아프리카 및 동남아에 해외 선교방송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호영 선교사 편지

샬롬^^ 안녕하세요? 여기 라디오프로젝트는 순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먼 수도에서 안테나 설비팀이 와서 안테나(15m)를 설치하고 다음 주는 방음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이곳 아프리카 스타일로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의 추가 연수를 CBS 춘천본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두 사람 연수 부탁한다고 전화 연락 드렸습니다. CBS에서 준비해주신다 함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조언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긴 무척 더운데 한국은 춥다고 하더군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호영 선교사 드림

《아름다운 열정》

CBS 창사 60주년 기념 콘서트

2014. 3. 8(토)~9(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BS가 창사 60주년을 맞이해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클라라 주미 강, 렌넌트 피아노 듀오, 소프라노 박현주, 서선영, 테너 요셉 강, 바리톤 김동섭을 초청해 오는 3월 8일(토)~9일(일)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 콘서트를 가진다.



“나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살다가면 안될까?”

8기 구청선 단원 에세이 중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

한국YMCA전국연맹이
KB국민은행-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를 응원합니다 !

검색창에서 '라온아띠'를 검색해 보세요!



라온아띠 ▼

창사60주년을 맞은 CBS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YMCA와 함께 '건강한 소비윤리'등을 주제로 연중기획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YMCA가 벌이고 있는 동티모르 시민사회운동을 현장 취재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다.

CBS 라디오의 새로운 실험 오픈 스튜디오



주말 오후 목동 CBS 광장.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항상 사람이 많아 목동의 타임스퀘어로 불리는 이 광장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뭔데, 저기서 뭐해?”라며, 궁금한 마음에 모여 있는 인파 틈으로 들어와 까치발을 들고 기웃거리기 시작한다.

네모났지만 각지지 않은 대형 박스, 그 위에 비스듬히 솟아 있는 안테나, 동그란 모양의 커다란 스피커

와 채널까지.... 영락없는 라디오다. 대형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박스 안에는 스튜디오가 차려져 있고, DJ가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오픈 스튜디오는 어느새 목동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오픈 스튜디오 안으로 갑작스레 불러들여 인터뷰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오후 4시 해가 짧은 요즘쯤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할 때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7080가요가 흘러나온다. CBS 음악FM ‘가요속으로’(93.9MHz) DJ 박승화 씨가 진행하는 시간. 음악을 들려주고 사연을 소개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포스트잇에 신청곡과 사연을 적어 오픈 스튜디오 유리창에 더덕더덕 붙이기 시작한다. 음악다방에서 신청곡을 종이에 적어 슬며시 밀어 넣던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난다.

이처럼 라디오의 문턱이 낮아지자 청취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을 보내온다. 어느 청취자는 방송을 듣고 뜨끈뜨끈한 고구마를 삶아 직접 들고 찾아왔고, 또 다른 청취자는 오픈 스튜디오로 피자 배달을 시켜줬다.

제작진들은 “이러다 ‘짜장면’ 배달시켜 먹으며 방송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CBS 라디오의 ‘찾아가는’ 실험은 현재 진행 중이다.

CBS 음악 FM, 대한민국의 밤을 점령하다



음악 전문 라디오 CBS 음악 FM이 대한민국의 밤을 점령했다!

음악전문 라디오 채널로 사랑받고 있는 CBS 음악 FM의 3개 밤 프로그램이 각각 동시간대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석권한 것.

지난 11월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청취율 조사에 따르면 CBS 음악FM(서울/경기 93.1MHz, 부산 102.1MHz)의 대표 밤 프로그램인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허윤희의 꿈과 음악사이에> 등 3개 프로그램이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방송되는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 가장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며 각각 동 시간대 1위 자리에 올랐다.



라디오 진행만 30년이 넘는 베테랑 DJ인 텔런트 오미희씨의 <행복한 동행>(매일 밤 8시~10시)은 7080가요를 비롯해 귀에 익은 최신 가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선곡과 진행자의 따뜻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CBS 간판 음악프로그램인 <꿈과 음악사이에>(매일 밤 10시~자정)는 30~40대 라디오키즈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8090가요 프로그램이다. CBS DJ 콘테스트를 통해서 300:1의 경쟁률을 뚫고 전문 DJ로 발탁된 허윤희씨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전파를 탄다.



춘천중앙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 Chuncheon Central Church

2018 VISION 인생역사를 열어가는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권오서
원로목사 곽철영
부 목 사 장준태 이용석 김만수 이바울 김용화 이훈희 윤진원 신지만
협동목사 장노순
소속목사 김희산 이종서 이억상
수련전도사 민원기 고재일 노민준 이원민 박남훈
전 도 사 신지영
파송선교사 어성호 조시철 박정태 김찬 이○○ 한인자 임○○
해외협력 늘푸른교회 김신섭 이희문 황종운 송효진

200-943 춘천시 영서로 2151번길 30(퇴계동)
Tel. 033)259-3000 Fax. 033)252-3084 www.chmchurch.org

원로장로

심재환 김중순 안 민 이경애 신성주 민병재 이승오 김교익 고제국
정진원 양금직 김기태 신경희 이영식 송종철 정세연 조명강 곽부근
오동근 정승수 최남규 김창수 이은희 이인수 장안기 조정부 강창기 강경중

사무장로

조한진 노희영 김석권 김익상 함광복 심의섭 권명상 김응일 홍정자
김희정 허 봉 함미영 이명호 이종택 정원범 최문자 안두래 신해철
안문섭 심은숙 박은서 한재혁 박상진

24회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디클레어 '사랑해서' 대상 수상

순수창작곡으로 경연하는 국내유일의 오디션 프로그램 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이 지난해 10월 24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됐다.

8월 예선을 통과한 본선 12팀의 실력이 예년에 비해 탁월해 여느해보다 수준 높은 경연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대상에는 “디클레어”의 “사랑해서”가 금상은 김나영의 “praise him”, 은상은 “베아트리스”의 “the road”, 동상은 김청년의 “이것이 나의 소원”이 차지했다.

1990년 창작복음성가제로 출발한 이 대회는 지금까지 소리엘, 조수아, 위드, 에이멘, 강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역자들을 배출하며 찬양사역자들의 전통있는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CBS 최고 인기CCM, '야곱의 축복' CBS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10곡 중 6곡이 CCM

올해 CBS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최고의 인기 CCM은 '야곱의 축복'이었다.

CBS 크로스미디어센터가 올 4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청취자 분석 결과, 음악FM과 표준FM(2개 라디오 채널)을 합산해 가장 많이 방송된 곡은 Westlife의 'My Love'(75회)가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야곱의 축복'(74회)이 2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소원', 4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5위 '사명', 6위 '사랑합니다', 8위 '주님의 숲' 등 CBS에서 올 한해 가장 많이 방송된 곡 10위 안에 CCM이 무려 6곡이 포

함돼 있다.

올 한해 가장 인기 있는 CCM곡으로 꼽힌 '야곱의 축복'은 CCM 사역자 김인식 목사가 작곡한 곡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그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축복한 내용을 담아 요셉의 신실했던 삶을 그리고 있다.

또한 CBS 표준FM(1개 라디오 채널)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CCM 곡은 '야곱의 축복'이 74회로 1위의 영예를 차지했고, '소원'이 73회로 2위, 3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난 사람'(65회), 4위 '사명'(62회), 5위는 '사랑합니다'(59회)가 차지했다.

레인보우 청취자 분석은 CBS 크로스미디어센터가 지난해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 접속한 청취자를 대상으로 선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CBS 사목실의 기도하는 손길들

사목실에 속해서 CBS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1980년 언론통폐합 직후 'CBS 통신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어 '통신원선교회'를 거쳐 지금은 'CBS 선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34년째 봉사활동과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봉사단'과 2012년 1월에 창단되어 3년째 매주 목요일 CBS 예배실에 모여 중보기도를 이어오는 '중보기도단'이 있다.

선교봉사단

선교봉사단은 매년 홀수 달에는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찾아가 봉사하고 짝수 달에는 예배실에 모여 기도회와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CBS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봉사하는 이들은 그동안 루디아선교회, 베다니마을, 천사의집, 샬롬의 집 등 장애인 시설과 응암동의 꿈이 있는 푸른학교, 아현동의 나무를 키우는 학교 등 어린이 방과후학교, 그리고 영등포, 서울역, 청량리역, 인천 부평역, 주안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봉사를 시행해 왔다.

중보기도단

중보기도단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CBS 예배실에 모여 세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1) CBS의 각부와 표준 FM, 음악 FM, CBS TV의 각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2)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3) 라디오와 TV를 통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복사하여 한분 한분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하고 있다.

전직원 영성훈련 사목실이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실시한 제1단계 '전직원 영성훈련'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은혜롭게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제2단계 '전 직원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제2단계 영성훈련은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참석하는 직원들이 충분한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제2단계 '전직원 영성훈련'은 아버지학교, 성경통독원, 프레스디아스(TD) 등 외부 위탁 영성훈련과 자체적으로 기획한 하프타임 등 4가지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녀오게 되는데, 각 프로그램은 2박 3일로 진행할 예정이다.



CBS 여성합창단 “음악나눔, 사랑나눔”

정기연주회 훈훈한 나눔의 무대로 마련돼

CBS여성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가 나눔 콘서트 “하나란 아름다운 느낌”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1월 10일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또 지적 장애아동들로 구성된 '양천 힐링 청소년합창단'과 '둘로스 남성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이 찬조 출연하여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특별한 나눔의 자리도 마련되었는데, 합창단원들이 모은 선교 헌금을 뇌병변 1급 장애인 류흥주 목사가 목회하는 '너와 나의 교회'에 전달했다.



광주CBS



대구CBS



방송선교사 모집 위한 '두 남자 톡! 콘서트'

광주CBS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방송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매달 한차례 지역 교회를 찾아 '두 남자 톡! 콘서트'를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무등교회(진명옥 목사 시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례 진행된 '두 남자 톡! 콘서트'는 위드의 김상훈과 축복의 사람 박요한이 진행을 맡고 있고 해당교회의 찬양팀과 초청 CCM가수가 무대에 올라 은혜로운 찬양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CBS와 방송선교사를 홍보하고 있다.

'톡!'에는 성도들의 영적인 감성을 '살짝 건드리다'는 뜻과 '대화하다'의 TALK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두 남자 톡! 콘서트'에서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하나님 말씀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CBS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교계, 성도들의 CBS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역 교회와의 소통 등 또 하나의 알토란 같은 성과를 얻고 있다.

광주CBS는 매달 한차례의 '두 남자 톡! 콘서트' 진행과 함께 찬양의 꽃다발 프로그램의 공개방송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하나님의 방송 CBS가 광주 전남 교계에 굳건히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CBS 안동중계소 올 상반기 개국 예정(FM 92.3MHz)

올 상반기 CBS 안동중계소 개국을 앞두고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안동중계소를 허가받은 대구CBS는 오는 6월 개국을 목표로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안동중계소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초 특별모금방송을 하는 데 이어, 3월쯤 장비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비 설치가 끝나면 5월부터 한 달간 시험방송을 거쳐 6월 중에 정식 개국할 예정이다.

이곳에 CBS 중계소가 건립되면 CBS의 선교와 시사, 뉴스, 교양프로그램을 보다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 있어 난청지역 해소는 물론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 복음확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대 대구CBS본부장은 안동중계소 설립을 계기로 안동지역 교회연합기관과 협력해 뉴스와 선교 방송은 물론 크리스천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 네트워크

위드하우스 3호점 준공 감사 예배

부산CBS는 세정나눔재단, 러브부산운동본부와 함께 새해 들어서도 무료 집수리 봉사에 나서 부산시 서구 충무동에 위치한 차 모 씨(76)의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위드하우스 3호점으로 이름 붙여진 차 씨의 집은 지난 1월 18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싱크대 설치, 장판, 도배, 전기 작업 등의 공사를 마치고 27일 준공감사예배를 드렸다.

차 씨는 이단 신천지에 미혹된 아내가 집을 떠난 후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중 그를 전도하기 위해 찾아온 수영로교회 김 모 집사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 씨의 사정을 듣고, 부산CBS에 집수리를 요청해오면서 이번 ‘위드하우스 3호점’ 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번 집수리를 총괄한 김진훈 집사는 “위드하우스 1, 2호점과는 달리 수리할 곳이 너무 많아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차 할아버지가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보금자리에서 옮겨올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과 12월 30일 위드하우스 1호점, 2호점을 각각 탄생시킨바 있는 부산CBS와 세정나눔재단, 러브부산운동본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지속해서 집수리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CBS



지역의 어려운 이웃 섬기기 앞장

포항CBS(조중의 본부장)는 지난해 12월 23일 포항시 남구 상대동사무소와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인 주찬양교회(담임목사 이사람)를 방문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라면 130상자를 기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장애인 재활 선교단체인 경북 밀알선교단(단장 홍재우)과 무료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항참사랑교회(담임목사 주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포항YWCA 소망의 집을 방문해 100여 상자의 라면을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CBS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마련했다. 포항CBS는 12월 7일 라디오 찬양 프로그램인 ‘유상원의 해피타임’ 성탄 공개방송을 열고 참가자들로부터 라면을 기탁받았다.

포항CBS



스마트 세상

‘확 바뀐’ 노컷뉴스 앱 2.0 출시

실시간 속보와 차별화된 동영상 콘텐츠, 시사 팟캐스트

노컷뉴스 앱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다. CBS는 실시간 헤드라인 뉴스와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노컷뉴스 애플리케이션 2.0 버전을 출시했다.

노컷뉴스 모바일 앱은 ‘오프 캔버스(Off-Canvas)’ 메뉴 방식을 적용해 시원하고 깔끔한 화면으로 노컷뉴스가 선정한 실시간 헤드라인 뉴스를 볼 수 있고, 모바일 특성에 맞게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속보를 푸쉬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와 ‘하근찬의 아침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 CBS의 주요 시사 보도프로그램 팟캐스트를 노컷뉴스 앱에서도 바로 들을 수 있다.

또 독자들은 노컷뉴스 앱을 통해 사건·사고 현장소식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한 내용은 CBS 통합뉴스룸으로 곧바로 전송돼 기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밖에 RSS 리더를 통해 노컷뉴스가 선정한 주요 블로그를 구독할 수 있으며 각 뉴스 콘텐츠는 SNS 공유를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바로 보낼 수 있다.

- 아이폰 앱 설치 링크 : <http://goo.gl/c0y7fw>
- 안드로이드폰 앱 설치 링크 : <http://goo.gl/vgcUOK>

CBS TV, 애플TV에 런칭된
한국 채널 중 2위 기록

CBS TV가 애플TV에 런칭된 한국 방송 채널 중 접속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애플TV에 한국 채널을 공급하고 있는 ‘KORTV’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월 8일까지 접속자 수를 분석한 결과, CBS TV 접속자 수가 14만 7천 명으로 JTBC(16만 8천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CBS TV는 지난해 12월부터 애플 TV에 실시간 채널을 개설했는데, 별도의 위성 수신기가 없어도 애플 TV만 설치하면 해외에서도 CBS가 제작한 고품격 크리스천 콘텐츠를 손쉽게 시청할 수 있다.

KORTV 관계자는 “CBS TV가 전체 무료채널 중 2위를 기록했다”며 “해외 교포들을 중심으로 크리스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CBS는 실시간 채널에 이어 <새롭게하소서>와 <성서학당> 등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도 애플 TV에 제공할 예정이다.

애플TV는 애플의 스마트 미디어 플레이어로, 고화질(HD) TV와 연결해 인터넷은 물론 영화와 음악,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1,800만대 이상 판매되었으며, 미국 내 각급 학교에서 시청각 미디어 플레이어로 사용 중이다.



CBS TV 앱 업그레이드

기도방, ARS후원 등 이용자 참여기능 확대



크리스천 대표 채널 CBS TV가 최근 방송용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SNS 공유와 기도방 등 사용자 참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출시된 CBS TV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CBS방송'으로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CBS TV 앱에서는 실시간 생방송을 볼 수 있고 <새롭게하소서>, <성서학당>, <만사형통> 등 CBS TV의 대표 프로그램과 장경동, 김문훈, 김학중 목사의 파워특강, 국내 주요 목사들의 설교를 VOD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

또한 CBS TV 앱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의 공유와 링크가 가능하며 기도방을 개설하여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도 추가하였다.

이밖에 방송 앱 내에서 선교 후원 ARS 전화걸기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선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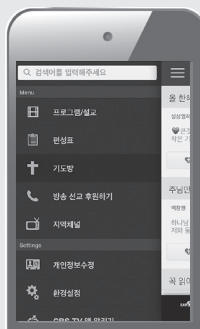
CBS TV 앱은 2011년 4월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었으며, 2년 만에 업데이트되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 문의 사항 : CBS 크로스미어센터 전략부

스마트폰 앱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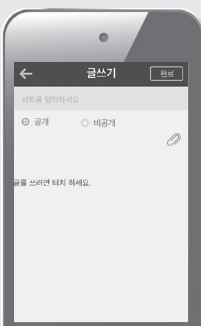
1
CBSTV
어플리케이션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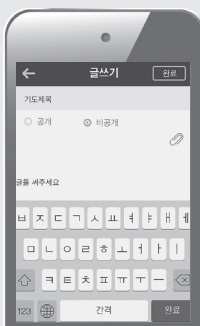
2
좌상단의
☰를 누른다



3
우상단의
✎를 누른다



4
기도제목과
기도내용을
작성한다



5
공개/
비공개
결정하고
완료 버튼을 누른다



6
기도방의
자신이
작성한
기도제목과
내용을
확인하면
끝

CBS 운영이사회 창립

지난해 11월 창립 총회... CBS와 교회 '소통' 공간



CBS가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 회복을 위해 운영이사회를 구성했다.

CBS운영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수도권 지역 목회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갖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CBS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CBS운영이사회는 건국 초기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이끄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CBS의 새로운 방송선교 정책 방향이 제시됐는데 CBS는 앞으로 '생

명을 살리는 방송'이란 슬로건 아래 '신앙운동'과 '선교사명', '사회공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운영이사회는 앞으로 노숙인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율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이들의 활동은 CBS 방송 콘텐츠를 통해 교회와 사회에 전파될 예정이다.

CBS운영이사회는 상동감리교회 서철 목사를 초대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영도교회 정중현 목사와 동성교회 안두익 목사, 구의교회 왕현성 목사를 부이사장에, 행복한교회 이규섭 목사를 상임이사에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CBS 수도권 운영이사회 운영계획

경기·인천운영이사회, 4월 출범 예정

2014년은 한국교회 130주년, CBS 창사 60주년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3년 앞둔 의미 있는 한해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 한국교회 안에서 CBS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수도권 운영이사회가 준비됐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한국교회와 함께 선한 사역 회복, 둘째 한국사회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회복하자는 큰 방향 속에 방송선교를 위한 자문, CBS 발전방안 제시, 중보기도, 재정협력 그리고 특별(공익)사업 시행으로 크게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우선순위 및 선정은 참여하는 운영이사의 자율 선정으로 진행됨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도권 운영이사회의 구성은 건 강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남부, 북부), 인천 등 권역별로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올해 목표 중 하나이다. 경기와 인천지역은 올 상반기 중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6개 시, 군, 구로 세분화하여 조직력을 강화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서울지역 운영이사회는 지난해 7월 18일 운영이사회 구성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11월 28일 서울지역 운영이사회 창립총회를 개

최했으며 2014년 1월 15일 서철 운영이사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린 바 있다.

'CBS를 위한 기도회'도 함께 진행된 서철운영이사장 취임감사예배는 윤종관 목사(개동교회), 정중현 목사(영도교회)를 비롯한 150명의 목회자 및 성도가 참여해 처음 출발하는 'CBS 서울지역 운영이사회'를 성원해주었다.

이재천 CBS 사장은 "운영이사의 활동상을 콘텐츠로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CBS 본질 그리고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축사로 화답했다.



서철 CBS 운영이사장 인터뷰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 되길”

지난해 새로 조직된 CBS 운영이사회 첫 이사장을 맡은 서철 목사(상동교회)는 “운영이사회가 CBS와 현장 교회가 서로 만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철 운영이사장은 “CBS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함께했으며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해 일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점차 교회 현장과 멀어지는 느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갖춰 생명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CBS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일을 위해 CBS 운영이사회가 설립됐음을 강조했다.

“운영이사회를 통해 CBS는 현장 교회로 다가오고, 현장 교회는 CBS로 다가가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지켜온 CBS의 가치와 사명을 살리면서도 복음적인 사명을 더 감당하게 돼 웨슬리가 얘기한 대로 ‘가장 아름다운 균형’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서철 운영이사장은 또 CBS가 추진하는 ‘100만 방송선교사’ 모집에도 운영이사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CBS 창사60주년 “당신을 믿습니다”

- 위안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 ‘믿음’으로 힘 주기
- 국민과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는 CBS 기업 이미지 심기
- 시청자, 국민, 성도 등 ‘당신’이 주인공인 방송 만들기
- 갈등과 좌절이 만연한 사회에 ‘신뢰운동’을 제안하기

‘We Trust’ 운동

- 공정(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도 최고의 방송언론사 CBS 만들기
- 정부, 기업, 시민단체, 학교, 종교기관 신뢰운동(지수) 개발
- 정치인 신뢰선언 : 1인 1약(Credit Manifesto), 가족, 직장
- 낙담하고 고난 받는 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In Jesus, We Trust’

- 하나님과 한국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 고백하기
“주님이, 한국교회가 아파하는 것을 CBS가 알고 있습니다. CBS가 그 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 한국교회와 함께 세상의 아픈 곳을 보듬고 치유하기
- 주님 안에서 당신을 믿어요 -I Pray for You(중보기도)



CBS 60th Anniv.



“창사 60주년, CBS의 새 얼굴입니다”

1954년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시작한 CBS가
2014년 창사 60주년을 맞습니다.
'60세 청년' CBS는 지금까지의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60년을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LIGHT (세상의 빛)



LOVE (사랑)



HARMONY(어울림)

CBS 새 CI는 미디어 스크린을 상징하는 사각 프레임 속에
세상의 빛, 사랑, 어울림의 가치를 담았습니다.